



# 스웨덴 직업교육의 다양성과 기업 직업학교 사례

송지원 (스웨덴 스톡홀름 경제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 ■ 머리말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는 2013년 4월 '제2차 한국 보고서 신성장 공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해결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다. 보고서는 중산층의 악화된 재무상황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는데 그 원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중산층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었다. 한국의 교육 관련 공공·민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8%, 가계소득의 9%로 1990년 이후 매년 4%포인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중산층은 고등교육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탓에 자녀의 명문대 입학을 위한 교육비 부담을 무리하게 늘리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지나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학교 확장을 통해 독일, 스웨덴과 같은 학문·직업교육의 투 트랙 교육제도(Dual Track System)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동록 맥킨지 파트너는 “국내 대기업들이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직업학교를 세워 졸업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직업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sup>1)</sup>

1) 동아일보, 2014년 2월 12일자, “맥킨지의 한국 신성장 공식 ‘삼성高-LG高 만들어라’,” <http://news.donga.com/3/all/20130415/54434584/1>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 마이스터고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 학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풍토로 인해 기술인력을 무시하는 태도는 여전히 만연한 상황이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학력 간 임금 격차가 한국에 비해 낮으며<sup>2)</sup> 기술을 가진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좋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스웨덴 사회의 기술 인력 우대, 능력 위주 문화의 근거로 학생의 관심사와 기업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스웨덴만의 독특한 직업교육을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스웨덴의 직업교육<sup>3)</sup> 시스템의 변동 과정과 그 다양성을 살펴보고, 그중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학교의 사례들을 통해 스웨덴 기업 직업학교의 특성을 다루고자 한다.

## ■ 스웨덴 직업교육 시스템의 개요

1940년대 이래로 스웨덴의 직업교육은 공공기관의 관할하에 이루어져 왔으나 1970~80년대를 거치며 중앙정부가 직업교육과정의 운영과 책임을 맡으며 일원화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이 시기 스웨덴에서는 ‘사회가 직업교육을 책임진다’라는 의식이 강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직업교육의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획일적인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지방 소재 기업들이 직업교육과 직업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제조업, 중공업 중심의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의 직업학교를 설립, 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사회에서 산업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4)</sup>

2) OECD의 교육 지표(2014) 통계에 따르면 스웨덴과 한국의 학력 간 임금 격차(고졸:대졸)는 스웨덴 100:135, 한국 100:161이다.

3) 이 글에서 직업교육은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을 의미하며, 직업학교 역시 한국에서의 실업계 고교, 마이스터 고교와 같은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직업학교를 의미한다.

4) Nilsson, A.(1998), The Emergence of New Models of Organis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Sweden, [http://tntee.umu.se/publications/eng/the\\_emergence.html](http://tntee.umu.se/publications/eng/the_emergence.html)

이처럼 직업교육의 다원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991년에 스웨덴 교육과정 내 직업교육(Vocational Program)과 대학진학 프로그램(Academic Program)을 분리하는 개편이 실시되었다. 당시에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이 12개, 대학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이 2개로 교육과정 내 총 14가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교육과정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스웨덴 기업과 산업현장의 노동수요 변화에 발맞춘 18개(직업교육프로그램 12개, 대학진학 프로그램 6개) 프로그램의 3년제 교육과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sup>5)</sup>

〈표 1〉 2011년 스웨덴 교육과정 개편 이후 교육프로그램

직업교육프로그램(12개)	대학진학 프로그램(6개)
① 어린이 오락	① 기술
② 건축 및 건설	② 예술
③ 전기 에너지	③ 경제학
④ 차량 및 운송	④ 인문학
⑤ 비즈니스 및 관리	⑤ 자연과학
⑥ 수공예품	⑥ 사회과학
⑦ 호텔 및 관광	
⑧ 산업기술	
⑨ 레스토랑 경영 및 식당	
⑩ HVAC 및 건물유지 보수	
⑪ 천연자원 사용	
⑫ 보건 및 사회복지	

자료 : Skolverket(2012). Upper Secondary School 2011.

개편된 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은 기초과목 이수를 줄이는 대신 현장실습 시간을 늘렸는데, 이는 기존 직업교육에 비해 산학연계 실습 시간을 늘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높은 기술적 역량을 확보한 전문 직업인이 되도록 양성하는 것을 새로운 지향점으로 삼았다. 그리고 직업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취업으로만 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 동안 대학 진학에 필요한 필수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5) <http://www.skolverket.se/om-skolverket/andra-sprak-och-lattlast/in-english/the-swedish-education-system/upper-secondary-school>

담겨 있다.<sup>6)</sup> 이처럼 2011년부터 직업교육프로그램과 대학진학 프로그램이 보다 분명하게 구분되면서 직업교육프로그램의 목표와 방향성 역시 더욱 뚜렷해졌다.

특히 새로 변경된 스웨덴 직업교육 과정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모든 직업학교의 3년 과정에 15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했다는 점(Work-based Learning, APL)이다. 이 현장실습은 스웨덴의 직업교육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산업 기술 프로그램(Industrial Technology Program)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학교의 이사진들이 작업장 선택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진다.
- 한 주의 현장실습을 23시간의 학교 교육시간과 동등한 시간으로 취급한다.
- 교장이 작업장에서 어떤 과목을 다루게 될 것인지 결정한다.
- 학생을 관리할 감독관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스웨덴은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 도제교육제도(Apprenticeship System)를 도입, 신청 학교들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과정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소 50주가량을 기업체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스웨덴에서 도제제도는 1950년대 말부터 낙후된 제도로 여겨져 왔으나 일부 기업에서 장기간 높은 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도의 유용성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1991년 교육과정 개편 당시 도제제도를 재건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sup>7)</sup> 그리고 2011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다시 도제교육을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도제제도의 경우, 학년의 구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그 외에 한 주의 현장실습을 23시간의 학교 교육시간과 동등한 시간으로 취급하는 점이나 교장의 작업장 내 과목 선택권과 같은 부분은 현장실습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스웨덴 기업과 직업교육 간의 관계가 밀접해짐에도 불구하고 산학연계에 대한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때와는 다르게 2011년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현장실습 강화와 도제교육제도 도입이 이루어지면서 스웨덴의 직업교육이 기업과 더욱 강하게 연계될 것

6) Skolverket(2012), Upper Secondary School 2011.

7) Nilsson, A.(1998), The Emergence of New Models of Organisation of Vocational Education in Sweden, [http://tntee.umu.se/publications/eng/the\\_emergence.html](http://tntee.umu.se/publications/eng/the_emergence.html)

이라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기존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최근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과 체결한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MOU’ 프로그램 역시 산학연계 직업교육의 한 사례로 볼 수 있지만 기업이 적극적으로 특정 기술을 교육하고 전수하는 형태의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한국 내 기업 직업학교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스웨덴 내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스웨덴 기업 직업학교의 사례와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 기업 운영 직업학교의 사례

스웨덴 기업 직업학교는 수출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중공업 분야 대기업들인 볼보, Scania, ABB 등에서 생산기지가 있는 지역에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화로 인한 과열된 시장 경쟁 탓에 이들 기업들은 교육과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인력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sup>8)</sup> 이러한 직업학교들은 1991년 교육과정 개편과 1992년 사립학교법 개정 과정을 거치며 2000년대에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08년 기준,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 중 19%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기업 직업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비율은 2013년 25%로 증가하여 기업 직업학교의 인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기업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에 개입하고 직업학교를 설립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높은 기술 역량을 가진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인력들을 직업학교 졸업 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 직업학교를 두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기업의 직업교육 개입을 독려하고 산학협력을 도모한 교육계의 힘도 기업 직업학교 증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스웨덴의 대표적 기업 직업학교인 ABB, 볼보, 페르스토르프 AB사의 직업학교

8) Nilsson, A.(2008),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n Sweden 1850-2008 –a brief presentation. Manuscript.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Department of Economic History.

9) Skolverket(2012), Upper Secondary School 2011.

사례를 통해 각 학교의 중점 분야와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ABB 직업학교(ABB Industrigymnasium)

ABB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ASEA사와 스위스의 BBC사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Asea Brown Boveri Group)로 전력과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이다. ABB는 스웨덴 내 몇몇 지역에 공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었는데 1994년 모터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던 Västerås 지역을 시작으로 ABB 직업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스웨덴 내 세 지역(Västerås, Ludvika, Sala)에서 500명 정도의 학생을 가르치며 운영하고 있다. ABB 직업학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중 기술과 전기·에너지 프로그램을 맡아 가르치고 있으며 세부 프로그램은 각 지역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Västerås 학교와 Ludvika 학교에서는 각각 제품개발과 전력기술 분야의 공학기술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는 반면, Sala 학교에서는 에너지 기술 분야에 더욱 비중을 두어 가르치고 있다.<sup>10)</sup> 이는 지역 내 제조시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기술 분야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페르스토르프 직업학교(Perstorp Gymnasium)

페르스토르프 AB는 1881년 설립되어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화학회사로 현재 스웨덴 말뫼에 본사를 두고 있다. 페르스토르프의 직업학교는 회사가 출범한 지역인 페르스토르프에 1996년에 만들어져 각 학년당 30명씩 총 90명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sup>11)</sup> 모기업의 주력산업이 화학 산업인 만큼 페르스토르프 직업학교의 중점 프로그램 역시 화학과 관련한 자연과학, 공학기술 등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 고등학교 프로그램의 총 수업시간보다 50% 더 많은 시간을 소화하게끔 하며 자연과학 프로그램의 이론수업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게끔 하고 있어 교육의 수준과 강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1인당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을 지급하는 등 학교 차원의 지원도 잘 이루어져 있다.

10) ABB 직업학교 홈페이지, <http://abbindustrigymnasium.se/start>

11) 페르스토르프 직업학교 홈페이지, <http://www.perstorgymnasium.org/>

## 볼보 직업학교(Volvo gymnasiet)

볼보 직업학교는 교육프로그램 중 자연과학, 기술, 산업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142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볼보 직업학교는 지역사회의 번영과 기업과 사회의 동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소통과 협동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3년의 교육과정 중 1년차에는 학생들이 공통과목을 수강해야 하나 다른 과목을 수강할 기회도 주어진다. 2년차 교육과정을 마치면 자동생산라인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획득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며 그 후에는 추가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볼보 직업학교에서는 다섯 가지의 전문분야를 두고 가르치고 있는데 수리기술 공학, 자동화 공학, 생산 공학, 주소, 정비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sup>12)</sup>

앞의 스웨덴 기업 직업학교 사례를 보면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직업학교들에서 모기업이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둘째, 기업이 독자적으로 직업학교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아닌 국립교육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점, 셋째, 지역사회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특히 두 번째 특징을 주목해 볼 만한데, 스웨덴 직업교육에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이다. 각각의 기업 직업학교가 강조하는 분야는 다르지만 국립교육청프로그램하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는 것은 스웨덴의 어느 직업학교에서 교육을 받든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학교의 운영 역시 궁극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스웨덴 교육의 목적과 맞닿아 있다. 또한 직업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학생들의 관심사를 존중해야 하는 교육계의 시각과 산업현장의 새로운 기술 및 인력 수요를 반영해야 하는 산업계의 시각을 골고루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스웨덴에서는 교육청에서 각 프로그램별로 위원회(National Program Council : NPC)를 소집하여 산업계와 교육계 모두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또한 스웨덴 직업교육이 갖는 상대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 볼보 직업학교 홈페이지, <http://www.volvogymnasiet.se/>



생산기지와 공장이 있는 지역 인근에 직업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지역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스웨덴 기업들의 시도는 주의 깊게 볼 만하다. 단순히 생산기지나 공장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에 투자하여 지역의 청년 고용에 일조하는 것은 최근 청년 실업과 불균등한 지역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 맺음말

스웨덴의 직업교육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노동시장 요구에 맞는 체계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직업학교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직업교육체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맥킨지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기업 주도의 직업학교 활성화를 제안한 근거를 스웨덴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기업 직업학교에서의 교육이 훈련된 인력을 양산하고 이렇게 훈련된 인력이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시켜 고용안정을 이루는 스웨덴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할 부분이다. 이뿐 아니라 스웨덴의 기업 직업학교와 여타 직업교육은 스웨덴 사회 내 능력 중심의 문화를 배양하는 데에도 일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사회는 학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능력보다 학력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 직업학교와 새로운 형태의 직업교육이 올바르게 정착된다면 일반 사회에서 기술을 가진 직업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교정될 수 있을 것이고 지나친 학벌추구형 사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한국 사례를 생각해 볼 때, 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업학교는 사기업이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계의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 하지만 앞선 스웨덴 사례를 통해 보았듯이 교육계와 산업계가 함께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여 직업학교를 꾸려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한국 내 기업 운영 직업학교 도입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KLI**